“통일, 새 미래 가는 길”

김진환 교수, 민추본 부산본부 2016 강연회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키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는 6월 8일 부산 원오사서 ‘통일, 왜 해야 할까요?’를 주제로 2016 정기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의는 김진환 통일교육원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먼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분단과 대결로 인한 불편함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한 예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꽃게 · 명태 · 오징어 등이 대부분 북한 · 러시아 해역으로 북상, 남한의 어획량이 감소했다. 또 과수 재배지도 북상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농수산물이 북한서 재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이 되면 한국서 베이징까지 고속철도로 4시간, 유럽까지 화물 수송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는 등 한국은 동북아의 무역 · 물류 중심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통일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남 · 북민족 구성원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가슴 설레는 과정”이라 역설했다. 박아름 기자



민족공동체추진 부산지역본부는 6월 8일 원오사서 ‘통일, 왜 해야 할까요?’를 주제로 2016 정기강연회를 개최했다.

사랑 싣고 달리는 ‘불광사 밥차’

수자타 봉사단 창단, 6월 25일 첫 나눔행사

소형 중고트럭, 밥차로 개조
“소외된 이웃 직접 찾아가기 위해”
재활원 · 요양원 등서 무료급식
라오스 불자들 사물놀이 공연도


부산 초읍 불광사가 찾아가는 봉사를 시작했다. 불광사는 ‘사랑을 담은 밥차’를 제작하고 6월 25일 신애 재활원을 방문했다.

부산 초읍 불광사 주지 보광 스님의 자가용은 매우 특별하다. 소형 트럭 뒤편 짐칸을 열면 그릇들과 가스용 버너, 쟁반 그리고 설거지 할 공간까지 줄지어 나온다. 얼마 전까지 삼보일배로 전국을 누비던 보광 스님이 소형 중고트럭을 구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스님은 ‘사랑을 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6월 25일 ‘사랑을 담은 밥차’가 첫 운행을 시작했다. 첫 번째 행선지는 부산 초읍 신애 재활원. 이곳서 생활하는 100여명의 장애 아동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아이들을 위해 스님이 준비한 것은 아이스티와 핫바. 트럭에서 스님이 직접 만들어내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줄을 선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금세 동이 났다. ‘감사합니다’고 말하는 아이들에게 보광 스님과 불광사 신도들은 도리어 고맙단 인사를 전한다.

보광 스님은 ‘수자타 봉사단’과 함께 하기 위해 밥차를 마련했다. 수자타 봉사단(회장 이복희)은 40여명의 불광사 신도들이 나눔 회향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만나겠다며 창단한 모임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무료급식을 위해 백양산 가파른 산길 500m 지점 백양사를 찾긴 어려운 상황. 얘기를 전해들은 스님은 직접 찾아가는 나눔을 실천키로 마음먹었다.

특히 수자타 봉사단의 급식 봉사 현장에선 라오스 불자들의 사물놀이 공연도 즐길 수 있다. 불광사에서 사물놀이를 배운 외국인 불자들은 무료급식 전 사물놀이 뿐 아니라 난타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 모든 활동에 대해 주지 보광 스님은 ‘봉사는 곧 포교이며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기도와 참선도 중요하지만, 직접 다가가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불교를 알릴 수 있단 것이다. 또한 스님은 불광사 신도들이 나눔을 통해 더욱 성장할 것이라 굳게 믿었다.

추문숙(76) 불자는 “몸이 성치 못한 아이들이 자신들 보다 더 약한 아이들이 방에 있다며 음식을 챙겨 갈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며 “몸이 건강한 나는 옆 사람을 진실로 배려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했다.

박순복(66) 불자는 “법당에 앉아 기도수행을 할 때와 달리, 타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됐다”며 “봉사가 곧 기도요, 포교라 말씀하신 스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다”고 웃어보였다.

이복희 회장은 “오늘 첫 활동을 시작해 보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든다”며 “도반들과 함께 기쁨으로 행복을 만들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불광사는 한 달에 두 번 초읍 어린이 대공원서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장학금 지원 · 라오스 후원봉사뿐만 아니라 매달 독거노인을 방문해 쌀 100kg을 전달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종교 화합으로 호국영령 위령제 봉행

부산종교인평화회의, 6월 24일 부산 UN기념공원서

불교 · 기독교 · 원불교 · 유교 · 천도교 등 종교인 100여명이 호국 영령을 위한 위령제를 봉행했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대표 무원)는 6월 24일 부산UN기념공원서 ‘유엔군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 위령제’를 개최했다.

불교계 대표 무원 스님은 “유엔군 전몰장병들의 거룩한 뜻을 생각해야 한다”며 “젊은 나이에 피의 전장에 서야만 했던 그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초석을 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석준복 목사(기독교 공동회장)는 “영령들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한다”며 “올해 정전 63주년이 됐지만 아직도 10만 명이 넘는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찾지 못했다. 또 500명이 넘는 국군 포로가 귀환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예우를 촉구했다.

정숙현(원불교 공동회장) 교구장은 “오늘 위령제가 영령들에게 위안을 찾는 소중한 기연이 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종교인평화회의가 6월 24일 부산UN기념공원서 ‘유엔군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 위령제’를 개최했다.

“호국정신 되살려 후손들에 전하길”

한국호국불교조계종, 35회 순국선열 합동위령제

(사)한국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본산 법전사(종정 혜륜)는 제35회 순국선열 호국전몰군경 월남참전용사 합동위령제를 6월 24일 경내 대강당서 봉행했다. 위령제는 성문 스님 등 4명 스님의 집전 권공과 신중작법, 상단불공, 천수바라, 도량게, 헌화 및 분향 등으로 진행됐다.

종정 혜륜 스님은 “애혼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하고 깊은 유혼의 뜻을 새겨 보고자 합동 위령제를 봉행하게 됐다”며 “시간 속에 묻혀가고 있는 호국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후손들에게 애국과 충성심을 일러주고 남북통일을 이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종정 혜륜 스님, 세계불교법륜종 종정 법광 스님, 충남불교조계종 종정 남산 스님, 한국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스님, 한국불교전법조계종 종정 일웅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한국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본산 법전사(종정 혜륜)는 제35회 순국선열 호국전몰군경 월남참전용사 합동위령제를 6월 24일 경내 대강당서 봉행했다.

전통 사찰 청량사 훼손위기 “반드시 지켜낼 것”

부산불교연합, 7월 7일 상생법 대법회 개최

한국수자원공사서 진행 중인 ‘에코델타시티’ 공사로 인해 전통사찰 청량사(주지 운암) 경내지 250여 평이 공사부지로 영입됐다. 이에 따라 부산 강서구 내 유일한 전통사찰인 청량사가 전통문화 및 수행환경 훼손의 위협을 받고 있다.

청량사 수행환경수호 대책위원회(이하 수행환경대책위)는 6월 29일 경내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근원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행환경대책위는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의 수용과 개발은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 수자원공사측은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에코델타시티 개발 공사를 시작했다. 전통사찰 청량사와 친수지역인 강서구의 자연환경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하는 ‘에코델타시티’ 공사로 인해 청량사가 수행환경 훼손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6월 29일 청량사서 수행환경대책위가 공사 부지에 포함된 경내지를 설명하는 모습.

수행환경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으로 인해 일주문 · 지장전 · 해우소 및 경내 앞마당까지 도로확장공사에 포함된다. 아울러 청량사 주변에 3~5m이상 복토공사가 시작되면 지면이 낮은 청량사는 도로먼지 뿐 아니라 침수위험에도 노출돼 사찰 기능이 완전히 마비될 상황이다.

청량사는 이러한 개발서 수행환경을 수호하기 위해 공사 중지도 불사할 것을 밝혔다. 청량사는 앞서 6월 27일 수자원공사를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친수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또한 7월 7일 오후 2시 ‘환경과 개발, 그리고 상생법 대법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엔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을 비롯해 부산 불자 1000여 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한편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은 국가하천 주변지를 체계 · 계획적으로 개발, 하천중심의 미래 지향적 수변도시를 조성하겠단 취지로 한국수자원공사 · 부산도시공사 ·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효도 삼계탕으로 건강 수호”

용호사회福, 어르신 위한 효잔치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의 ‘효도 삼계탕 데이’가 올해도 찾아온다. 다가오는 7월 15일(초복), 7월 27일(중복), 8월 16일(말복) 3차에 걸쳐 지역 독거 및 결식 어르신 1,300여명을 대상으로 삼계탕을 대접하고, 후원품을 전달한다.

‘삼계탕데이’는 복지관 문을 연 20년 전부터 한 해도 쉬지 않고 진행됐다. 현재는 지역 어르신을 위한 효 잔치로 자리매김 해, 기업 및 사찰 등서 많은 후원도 이어지고 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효도 삼계탕데이’를 3차에 걸쳐 개최한다. 사진은 작년 모습.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효도 삼계탕 데이를 준비하고 있다”며 “후원 및 동참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전했다. (051)628-6737 하성미 기자

달라이라마 특별법회 & 네팔 성지순례

현지 국내 항공 4회 이용으로 품격있는 순례

성지순례일정 : 2016년 8월 26일(금) ~ 9월 7일(수) 〈13일〉

▶ 법회 일정 : 8월 29일 – 9월 1일까지 (4일간)

한국어로 번역된 교재로 달라이라마 존자님과 4일간 공부하면서 법회를 봅니다.





◆ 순례지도법사 – 성효스님
◆ 활동 사항
제 14, 15대 중앙종회의원
23교구 본사 관음사 주지 역임
현재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순례 포인트
◆ 달라이라마 존자님 특별법회 4일
◆ 현지 국내선 4회를 이용한 편안한 순례
◆ 세계 7대 불가사의 타지마할 관광
◆ 한식 조리사 동행하여 한식 제공
◆ 네팔순례 그리고 아름다운 설산 히말라야 산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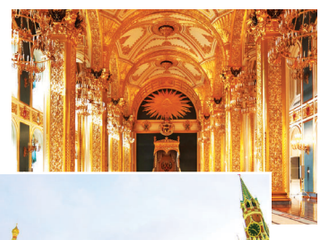
● 접수기간 : 2016년 7월 29일 (금) 까지
● 구비서류 : 여권
(출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여권사본, 사진 4매 (흰색배경 5×5cm)
● 장 소 :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 주 최 :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
대한불교조계종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스님
● 주 관 : 티벳대장경역경원
● 안 내 : 불타 여행사

대한불교조계종 승려연수교육 30점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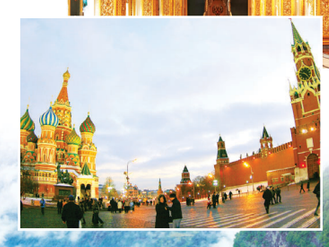
특별기획

출발 확정 : 8월 18일 (목) ~ 8월 27일 (토) (10일)

러시아와 북유럽 3개국 탐방



문화와 예술이 있는 나라 러시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북유럽 3국
러시아(모스크바, 상뜨페테르 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 자세한 내용은 문의 바랍니다.



북유럽
여주 목아 박물관 박찬수 관장님과 함께 합니다.



불교 성지순례전문
불타 여행사 BUDDHA BOHEMIAN 02)733-9317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파빌리온 804호
전화를 주시면 상세한 일정 및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